

치 사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불교를 넘어 온 국민에게 유익하고 향기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분발하셨던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한 열정의 공덕으로 올해도 불교의 문화와 가치를 담아낸 우수한 작품들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더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고, 때로는 아픈 마음에 위로해 주었으며, 때로는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정진으로 불교언론문화상이 어느덧 24년이라는 공덕과 격려가 어우러진 뜻 깊은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참신한 미디어 콘텐츠가 수없이 발굴되었고, 점진적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근간을 튼실하게 하는 도약의 발판이자 자양분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1700여년 동안 시대마다의 삶을 아우르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불교의 가치는 다양한 방편으로 온 누리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도 미디어의 역할은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과 물질의 편리가 더해질수록 인성과 정신의 삶은 오히려 더 척박해지는 현시대의 풍조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실히 전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작품들은 그러한 역할과 전통을 고스란히 담아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까지 이르기엔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깊은 인연의 동반자들입니다. 수

상 여부를 넘어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진중한 인연의 바탕에 한결같은 정진의 마음을 더하여,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좋은 작품들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부터 신문, 뉴미디어 그리고 영화,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자부심 넘치는 성취를 이루어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수불스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언론인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0(2016)년 11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